

◆ 2월 2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온라인 : 2월 26일(목) 12:00부터 보도

보도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http://www.kcue.or.kr

2026. 2. 27.(금)

문의 ☎: 02-6919-3814 대학혁신지원실장: 서동석 기획혁신팀장: 지준오 담당: 김 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6 대학 총장 설문(Ⅰ)」 조사 결과 발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 : 생성형 AI · 교원 · 대학 국제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이하 대교협)는 2026년 정기총회를 맞아 실시한 「2026 KCUE 대학 총장 설문(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설문조사는 2026년 1월 7일(수)부터 2월 6일(금)까지 192개교* 회원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140개교(응답률 72.9%) 총장들이 응답했다.
* 총 197개 회원교 중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5개 대학은 문항 특성상 조사대상에 미포함(국군간호/공군/육군/해군사관학교, 경찰대학)
- 대학 총장 설문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 설문 결과]

▶ 대학 총장들의 주요 관심 영역

- 대학 총장들의 주된 관심 영역 1위는 ‘재정지원사업(정부, 지자체 등)’ (72.9%, 102개교), 2위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 (63.6%, 89개교)으로 나타남.
-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에 대한 관심도가 전년 대비 14.3%p(26.4→40.7) 대폭 상승하며 새롭게 상위 5위권 내로 진입함. 이는 대학들이 교육 내실화와 환경 개선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줌.

▶ 생성형 AI 활용 정책 및 학생 평가 신뢰도 제고

- 생성형 AI 활용 정책(가이드라인 등)을 ‘채택’ 중인 대학은 40.0%(56개교)로 조사됨.
- ‘제정 검토 중’인 대학 또한 40.0%(56개교) 나타났으며, 「2024 대학총장설문Ⅱ(2024.06.19., 131개교 응답)」 당시 ‘채택·적용 대학’ 30개교와 비교할 때 관련 제도화 논의가 확산하는 추세로 해석됨.

- 생성형 AI 환경에서 학생 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우선 추진 과제로는 ‘평가 기준 명확화’와 ‘과정 중심 평가’가 공동 1순위(가중치 반영합계 199점)로 나타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큼을 시사함.

▶ 교원 경쟁력 강화 및 성과 보상 체계 관련

- 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 투자해야 할 영역은 ‘우수 교원 유치 조건 개선(가중치 반영합계 239점)’이 1순위로 나타남.
- 차등보상제 또는 교원 성과급 운영은 ‘운영 중, 전면 확대 필요’와 ‘미운영 중, 향후 도입 추진’이 각각 29.3%(41개교)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성과급 및 처우개선에 투입할 가용 재원 한계(가중치 반영합계 252점)’가 제도 개선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지적됨.

▶ 대학 국제화 및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관련

- 정부의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정책 성공을 위해 대학이 우선 지원을 요구한 사항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이 1순위(가중치 반영합계 214점)로 나타났으며, 이어 ‘지역사회 연계 및 정주 지원’ 순으로 나타남.
- 향후 중점 추진 국제화 분야(가중치 반영)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장기: 학위과정 등)’가 1순위(가중치 반영합계 344점)로 나타났고, 이어 ‘해외 대학과의 공동·복수학위제 및 트위닝 프로그램 운영’ 순으로 나타남.
-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해외 진출 및 국외 캠퍼스 설립 활성화와 관련하여(140개교 중 95개교 응답), 현실적 제약 요인으로 ‘법·제도적 규제(설립 제한, 비자 규제, 예산 집행 제약 등)’(48개교)와 ‘재정 부족(운영비·인건비 부족)’(46개교)이 1, 2위로 지적되는 등, 제도·재정 여건이 국제화 고도화의 핵심 제약으로 나타남.

□ 양오봉 회장은 이번 대학 총장 설문 조사를 통해 “대학 현장의 관심이 양적 확장을 넘어 질적 내실화 및 경쟁력 제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글로벌 도약에 매진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규제와 재정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정부 차원의 전략적 투자 및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며, 이것이 곧 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핵심 과제임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1. 2026 KCUE 대학 총장 설문(1) 응답 현황 1부
 2. 2026 KCUE 대학 총장 설문(1) 결과 1부(별도 붙임)
 3. 2026 KCUE 대학 총장 설문(1) 설문지 1부(별도 붙임)

[붙임 1]

2026 KCUE 대학 총장 설문(Ⅰ) 응답 현황

1. 조사목적: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대상의 설문을 통한 대학 현장 의견 수렴
2. 조사기간: 2026년 1월 7일(수) ~ 2월 6일(금)
3. 조사방법: 웹 설문조사
4. 조사대상 및 응답률: 회원대학 192개교* ⇒ 140개교 응답(72.9%)

* 총 197개 회원교 중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5개 대학은 문항 특성상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음(국군간호/공군/육군/해군 사관학교, 경찰대학)

<2026 대학 총장 설문(Ⅰ) 응답 현황>

구 분		회원 대학 현황*		응답 대학 특성	
		대학 수	구성비율(%)	응답대학 수	응답률(%)
전체		192	100.0	140	72.9
설립 유형	국·공립	41	21.4	31	75.6
	사립	151	78.6	109	72.2
지역	수도권	73	38.0	52	71.2
	광역시	38	19.8	25	65.8
	시·도 단위	81	42.2	63	77.8
규모**	대규모	52	27.1	41	78.8
	중규모	59	30.7	47	79.7
	소규모	81	42.2	52	64.2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5개교 제외

** 소규모 5,000명 미만, 중규모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대규모 10,000명 이상 (재학생 수 기준)